

회원사동향

제룡산업, 한전과 14억 계약 체결

전력기기 종합메이커인 제룡산업(주)(대표 박종태)는 지난 19일 공정공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14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시내용은 한국전력과 배전용 강관전주 총 2,914본에 대해 14억8,000만원의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기간은 오는 2004년 2월 18일까지이다.

보성파워텍, 한전과 32억 계약 체결

산업용 전력기자재 생산업체인 보성파워텍(주)(대표 임도수)는 지난 19일 공정공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와 32억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시내용에 따르면 보성파워텍은 한국전력공사와 강관전주 3,443본, 전선휴즈 43,411개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액은 32억2,200만원이다.

케이디파워 - 화통공사, 기술이전

수배전반 전문업체 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가 중국 화통기업공사와 20만달러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내 수배전반업체에서 기술공여에 대한 순수 로열티 형태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케이디파워의 주력 제품인 지능형 수배전반(버전 5.0)의 중국내 설계, 생산, 품질관리 기술을 약 3개월간에 걸쳐 기술이전하고 주요 디지털 기기 및 운영 소프트웨어는 케이디파워의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이다.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위치한 화통기업공사는 공식명칭이 '위해화통개관설비유한공사'로 '위해시 항우공업 집단'이라는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이며 위해시에서 수배전반 관련 부품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다. 특히 계약 단계에서 위해시 전력청의 추천을 받을 만큼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는 업체로 알려졌다.

케이디과워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소프트웨어 판매수익 등 연간 160만달러 정도의 추가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와 관련해 중국의 기간산업분야 신설비 개조 프로젝트 참여에도 유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사의 영업본부장 김임배 이사는 "對 중국시장의 시장환경을 정확히 읽고 전략을 구사하는 신 마케팅 전략과 국내무대에서의 5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3년 내에 중국내 시장점유율을 10%대로 끌어올리고 산업분야 네트워크로까지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능형 수배전반(버전 5.0)은 지난 98년 발표된 제품으로 현재 3,500여개 현장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최대전력, 역률, 고효율변압기를 탑재하여 33%까지 변압기 용량을 추가할 수 있는 터보기능 등이 특징이다.

특히 디지털과 IT 기술을 융합하여 지난달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정한 고효율수배전반 1호로 인증받기도 했다.

현대중, 네덜란드에 발전기 2기 공급

현대중공업(대표 최길선)이 네덜란드 도크와이즈사로부터 국내 최대 용량인 6500kW급 선박용 발전기 2기를 수주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선박용 발전기 중 가장 큰 용량은 4000kW급이다. 이번에 수주한 발전기는 분당 엔진회전수 600rpm, 정격 전압 6kV에 방진기능과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기절연물 등급도 'F클래스'로 성능과 안전성이 탁월하다.

이번 수주는 스웨덴 ABB사와 일본 니시시바사 등 세계 유수 업체와의 경쟁을 뚫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향후 동급 이상의 대형 발전기 시장 공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LNG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 일부 선박의 대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박용 발전기는 조선소에서 선박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이처럼 조선소가 아닌 선주사에서의 직접 수주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기술과 품질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전세계 선박용 발전기 시장의 46%를 차지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LG산전, 美 안전인증 획득 배선용 차단기 선배

LG산전(대표 정병철)은 최근 국내 최초로 미국 안전인증규격인 'UL489'를 획득한 배선용 차단기(품명 Meta-MEC, 메타맥)를 개발했다.

LG산전 관계자는 “이번에 획득한 UL489규격은 일부 선진업체만 획득했으며, 대내외적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인증시험은 해외에서 실시하지 않고, UL시험관의 입회 아래 LG산전이 설립한 전력시험 기술센터에서 실시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했다.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차단기 단자부의 절연 거리를 IEC규격 차단기 대비 140% 이상 확보했으며, 내구성 향상을 위해 IEC규격의 차단기보다 과부하 개폐 내구시험은 5배 이상 실시했다. 또 내전압 시험은 1000V를 더 높게 인가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의 시험을 통과했다.

일진전기, 올 매출 1천7백억 목표

일진전기(대표 홍순갑)는 지난 6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매출 1,765억원, 영업이익 261억원, 순이익 181억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은 14%, 영업이익은 44%, 순이익은 4% 증가한 액수다.

이밖에도 지난해 142.8%에 달했던 부채비율을 87%로 낮춰 재무구조를 탄탄히 하고 중국합작 투자 및 해외 에이전트 발굴 등을 통해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수익사업 정리를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신종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진전기는 이날 지난해 경영실적도 함께 공개했는데 매출액은 2001년보다 6.7% 증가한 1,529억원, 영업이익은 43.6% 증가한 148억원, 당기순이익은 무려 437.9%나 증가한 175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영업이익은 매출증가, 대손상각비 35억 감소 등의 이유로 지난해보다 45억 늘었다.

일진전기, 인사이동

- 사장승진: 일진전기 사장 홍순갑
- 부사장 승진: 일진전기 부사장 최진용
- 상무보 승진: 일진전기 전기사업본부 생산담당 김종석
- 상무급 전보: 일진중공업 기획, 생산, 영업담당 서승현, 일진중공업 생산지원담당 이계무

휴먼엘텍, 아크검출 전기안전장치 개발

전기안전장치 전문업체인 휴먼엘텍(대표 김천연)은 최근 이상전류 현상을 사전 차단해 발화원인을 없애 주는 제품을 개발·출시했다.

이 제품은 전기 화재의 주 원인인 아크를 사전 검출·차단하게끔 제조돼 배선상의 연결 결함이나 노화로 인한 발화위험을 최소화시킨 게 특징이다.

휴먼엘텍은 국내 고급 주거건물이나 주상복합, 공장 등에서 이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보급에 힘 쓸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지난해부터 신축건물 주거용 침실에 아크 차단장치 설치의 의무화하는 등 전기안전에 관한 법적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전기안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국내 수요도 급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이시스, ‘모터메가’ 국산화

계전기 전문생산업체인 디이시스(주)(대표 이창근)는 최근 모터의 절연파괴를 조기에 검출할 수 있는 ‘모터메가’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모터메가는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의 절연불량 및 절연파괴를 사전에 알려 모터 소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은 활선상태에서도 절연저항값을 조기 검출해 설비의 개보수 및 설비의 수명 등을 연장·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절연 검출 경보용 컨트롤러’이다.

또한 저압 및 고압까지 어느 선로에서나 사용할 수 있으며 절연 저항 상태를 디지털로 표시, 사용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압회로에는 고정밀용 특수 고압저항을 적용해 신뢰성과 안전도가 우수하다. 이와함께 3.3kV 또는 6.6kV급의 선로와 모터전압에 사용되는 센서를 적용, 고압선로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국산화한 모터메가는 포철 등 국내 각지의 수요처에서 품질의 신뢰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LG산전, 협력사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실시

LG산전(대표 정병철)이 협력업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사 혁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협력업체 끼안기에 나섰다.

LG산전은 협력업체와 동반 '1등' 실현을 위해 협력업체 혁신 활동인 ACE(Active, Challenge & Excellent)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ACE프로그램은 LG산전 제품을 판매하는 특약점에 LG산전의 혁신 전문가가 3개월간 파견되어 특약점의 ▲경영관리 능력 제고 ▲판매역량 강화 ▲사고행동 변혁을 추진하는 활동이다. 혁신 전문가는 특약점에서 고객만족 향상 활동, 신규고객 개척활동, 업무효율 극대화 활동, 재무개선 활동 등을 통해 특약점의 경영체질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LG산전 관계자는 "기업경쟁력 확보는 기업과 협력업체가 일심동체가 돼야 가능하다"며 "이번 활동은 기업과 특약점이 동시에 1등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윈-윈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LG산전은 우선 이 프로그램을 4개 특약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조만간 200여 개의 모든 특약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효성, '변전소 자동화시스템' 산업용SW 시범인증

(주)효성(대표 김재학)이 개발한 '변전소 종합 자동화 시스템' 이 산업용 소프트웨어 국제표준 적합성평가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산업용 소프트웨어 국제표준 적합성평가 시범인증 사업은 기술표준원에서 국내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국제 표준화기구인 ISO에서 정한 국제표준의 소프트웨어 평가기술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범인증을 획득한 효성의 변전소 종합 자동화 시스템은 변전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변전소 종합 자동화 솔루션으로 기존의 감시·계측 및 제어 기능 외에도 변전기기에 대한 예방 진단 및 보안방재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나의 소프트웨어 패키지에 다양한 기능이 통합된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디지털 보호 계전기와 각종 센서를 통해 변전소 현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GIS의 부분방전 및 변압기 절연유 열화 정도 등에 대한 온라인 진단이 가능하며, 보안방재 기능은 현장에 대한 실시간 화면 전송을 통해 침입자·화재 등에 대한 원격 감시가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특히 독립적인 구성으로 시스템 규모 및 사용자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며 이미 신설 또는 기존의 배전급 및 154kV급 변전소에 사용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뢰성 및 확장성을 인정받았다.

효성, 임원 정기인사

(주)효성은 2월13일자로 임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중공업PG 및 전력PU부문의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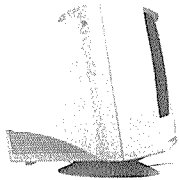
한편, 전임 이돈영사장은 지원본부장(사장)으로 전보되었음.

〈승진〉

- ▲사 장 - 중공업PG장 겸 전력PU장 김재학
- ▲이 사 - 전력PU 문섭철
- ▲이사대우 - 전력PU 송원표, 기전PU 심상식, 중공업PG 정연주, 중공업PG 창원공장 주재규

〈전보〉

- ▲상 무 - 전력PU 본사 하현성, 중공업PG 창원총괄공장장 김덕수
- ▲이 사 - 중공업PG 기술기획담당 신희승
- ▲이사대우 - 중공업연구소장 이학성, 중공업PG 중국사업담당 윤경혁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